

프린트하기

## 신풍제약, 유착방지제 ‘메디커튼’ 대통령상 수상



▲ 신풍제약 유제만 대표이사(오른쪽)가 '2015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'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.

[라포르시안] 신풍제약이 유착방지제 ‘메디커튼’ 개발로 ‘2015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’ 대통령상을 수상했다.

메디커튼은 신풍제약과 포스텍 한세광 교수가 공동연구 개발한 제품이다.

이 제품은 생체적합성과 상처치유력이 우수한 ‘히알우론산(H.A)’과 항혈액응고 및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‘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(HES)’를 복합해 수술 후 유착방지용 주사제로 개발됐다.

신풍제약 관계자는 “메디커튼은 이러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2년 자궁경 수술 후 유착방지 허가를 받은 이후 2013년에 복부 수술과 척추수술에 대한 적응증을 연이어 획득했다”고 말했다.

[ 조필현 기자 chop23@rapportian.com ]

라포르시안(www.rapportian.com) - copyright © (주)올댓닥터스. 무단전재 & 재배포 금지